

새로운 곳에서 글쓰기 시작하면서 담고 싶은 내용

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성격인가보다. 여기 저기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다시금 여기까지 돌아왔다. 내가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는 위키라는 생각 때문이다. confluence 위키를 쓰기 시작하는 7년 정도 된 듯하다. 그 사이 confluence 위키도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 그만큼 글쓰기 더 좋은 도구로 발전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새로운 곳에서 쓰고 싶은 글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프로그래머로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한다. 단순히 프로그래밍 이야기만 하려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네 삶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

사회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할 수록 우리네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우리네 삶 자체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짬을 내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생각이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이야기만 하지 않을 계획이다. 내가 순간 순간 공감하고 느끼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풀어가볼 생각이다. 내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쓴다. 이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더 이상 새로운 곳을 만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 공간을 키워나가고 콘텐츠를 쌓는데 집중해야 겠다. 더 즐거운 나의 미래를 위해서..